성인병 예방식품 4가지 공동개발

바이오벤처 14사 공동설립 바이오벤처사업단, 판매수익 공동분배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처음으로 공 동설립한 바이오벤처사업단(대표 정성욱)이 콜레스테롤 억제제 등 4개 상품을 개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바이오벤처사업단은 쎌바이오텍, 한솔메디플랜, 켐온 등 기능성 식품분야 바이오 벤처기업 14사가 공동 마케팅을 위해 2001년 12월 설립한 마케팅지주회사로 그 동안 사업화 성공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어왔다.

바이오벤처사업단은 첫 사업으로 콜다운(콜레스테롤 억제제), 헬리코Y(위염균 억제제), 키토비아(다이어트 및 노폐물 제거제), 베타킹(면역증강제) 등 성인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식품 4가지를 선보였다.

소속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능성 소재 및 원료를 활용해 개발됐다.

사업단은 상품을 쎌바이오텍의 군포 공장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생산해 유통전문회사인 나라콤을 통해 최근 시판에 들어갔다.

정성욱 사업단장(인큐비아 대표)은 "신규 개발한 상품들은 소속 벤처기업의 박사급 연구진 40여명이 시장분석부터 연구개발까지 공동으로 작업해 내놓은 것으로 공동판매 수익은 벤처기업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동판매 과정에서 개발에 참여한 40여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전국적인 강연회에 참석시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단은 앞으로도 매달 1-2개씩 신제품을 공동 개발해 내놓을 계획이다. 또 유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분야 대기업과의 업무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15>